

‘끝판대장’ 온다...우규민 셋업맨 기용?

(오승환)

최지광·임현준 ‘미스터제로’ 행진
우규민 2세이브·노성호 ERA 1.00
불펜 전체 ERA 4.98 예상외 선전
오승환 일주일 후 복귀엔 천군만마



오승환 우규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 ‘구원의 종소리’가 들려올 날이 임박했다. ‘끝판왕’ 오승환(38·삼성 라이온즈)의 징계 해제까지 정확히 6경기가 남았다. 오승환 없이 구원진 평균자책점(ERA) 3위에 올라있는 삼성으로서 이번 주 좋은 마무리가 필요하다.

오승환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법원에 약식 기소된 뒤 KBO로부터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외생활을 청산한 오승환이 없었지만 삼성 불펜은 ERA 4.98로 선전했다. 패전처리조가 난타 당해 생긴 허수를 제외한 필승조의 기록은 훨씬 뛰어나다. 최지광(10경기 10이닝 3홀드·ERA 0.00)과 노성호(9경기 9이닝 3홀드·ERA 1.00)는 든든한 허리다. 여기에 좌타자 스페셜리스트 임현준(9경기 5.1이닝·ERA 0.00)의 가치도 쏠쏠하다. 클로저 우규민(7경기 7.1이닝 2세이브·ERA 4.91)도 버티고 있다. 장필준(5경기 5이닝·ERA 7.20)이 고전하고 있음에도 양과 질에서 다른 팀에 견줘 밀릴 게 없다.

환은 지난해 8월 6일 삼성과 계약했다. 당시 삼성이 102경기를 치른 시점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경기를 소화한 상태에서 올해 30경기만 더 채우면 징계 해제가 가능했다. 올 시즌 삼성은 5월까지 24경기를 마쳤다. 이번 주 우천순연이 거듭되지 않는 이상 오승환은 다음주 복귀할 수 있다.

여기에 끝판왕이 가세하는 것이다. 오승환의 몸 상태는 이미 80% 가까이 올라왔다고 전해진다. 오승환은 삼성과 계약한 직후 팔꿈치 뿔조각 제거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재활 후 컨디션이 오르는 시점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개막이 미뤄지면서 시간을 번 셈이 됐다. 현재 277세이브를 기록 중인 오승환은 이르면 올해 KBO 리그 최초로 개인통산 300세이브 고지를 밟을 수도 있다.

오승환의 기용방식은 허삼영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가 결정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유력하다. 그 경우 우규민까지 셋업맨으로 가세하면 삼성 불펜은 리그 정상급 팀까지 갖추게 된다. 그렇기에 오승환 없이 버티는 마지막 일주일의 갈끔한 마무리가 절실하다. 만약 와르르 무너진다면 7년 만에 다시 KBO리그 팬들 앞에 서는 오승환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처럼 각자가 갈끔하게 제 역할을 해준다면, 가장 든든한 동료가 부담 없이 가세할 환경이 조성된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당겨 치지마” 라모스의 조언 오지환 ‘타격 슬럼프’ 탈출?



LG 오지환

어지간한 야구팬이라면 2020시즌 초반 LG 트윈스 오지환(30)의 타격 슬럼프를 안다.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누구는 일찍 앞서서 치기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좋은 타구를 만들 스윙 각도를 만들지 못해서라고 한다. 수비만 놓고 보면 KBO리그 최고 수준이지만 기대이하인 그의 타격 성적에 대해 야구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는다.

오지환은 지난달 24일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특타’도 소화했다. 이병규 타격코치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했다. 왼손의 힘을 빼기 위해 레전드 타자 양준혁처럼 공을 때리는 순간 배트를 왼손을 놓는 방법까지 써봤다. 한동안 ‘멘도사 라인’을 지키다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에서 3안타(2홈런)를 뽑아 시즌 처음 2할 타자가 됐다. 1일 현재 타율은 0.227(49위)다. 지난주 6경기에서 8안타를 친 덕분이다.

보통 감독들은 소속팀 선수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류중일 감독은 이례적으로 에둘러 거론한 적이 있다. “우투좌타로 전환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후회한다는 얘기가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문제점을 설명했다. 선수의 자존심을 고려해 직접 지적하기 보다는 언론을 통해 선수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했다.

수많은 해설가들도, 누구보다 속이 탈 타격코치도 조언을 건네고 해법을 찾지만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타격이다. 타자들은 0.5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마치 좁은 터널을 통과해 눈앞으로 확 날아오는 빠른 공을 치는 기술을 수십만 번의 스윙을 통해 몸에 기억시킨다. 완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30%의 낮은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플레이가 타격이다.

오지환은 그동안 익혀왔던 기술로 성공했기에 하루 아침에 새 기술을 습득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해왔던 방법들 중 어떤 부분에서 색다른 시도를 통해 성공했을 때이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우연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지환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중요한 안타 2개를 쳤다. 이를 계기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보였다. 그동안은 자신의 타격 폼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동료 로베르토 라모스의 조언으로 생각을 바꿨다. 라모스는 “굳이 당겨서 치려고 하지 말고 왼쪽이나 중앙으로 타구를 보내라”고 했다. 문제 있는 타격 자세가 아니라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꿔 해법을 찾으라는 접근법처럼 들린다.

과거 메이저리그의 어느 유명한 타자는 야구를 전혀 모르는 아내의 조언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남편의 경기를 지켜보던 아내는 고민하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내 자리에서 당신의 등번호가 보였는데 요즘에는 스윙 때 등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타격은 이처럼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

김종근 기자 marco@donga.com



3루 노렸는데...노플레이라니 5월 31일 광주 LG-KIA전 3회초. LG 라모스(44번)는 2루타를 때려낸 뒤 KIA 3루수 황윤호(오른쪽 끝)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3루까지 내달렸다. KIA 투수 가농(40번)도 황급히 3루 커버에 나섰지만, 3루심은 여유 있는 동작으로 타임 상황임을 알렸다.

8연패 한화, 급한 불 꺼야하는데...상위권만 만나네

위클리 프리뷰

4위 키움 이어 선두 NC와 3연전

산 넘어 산이다. 장기 연패의 늪에 빠져 순위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밀려난 한화 이글스는 6월의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연달아 마주한다. 4위 키움 히어로즈와 선두 NC 다이노스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다. 한화는 5월 29~31일 SK 와이번스와 치른 최하위 맞대결에서 쌍둥이 패배를 떠안으며 꼴찌로 내려앉았다. 23일 NC전 무득점 패배(0-3)

를 시작으로 충격의 8연패에 빠져있다. 1일까지 팀 평균자책점 8위(5.22), 타율 10위(0.242)로 투타 모두 부진한 상태다.

한화는 8연패 기간 중 0.202의 저조한 팀 타율을 기록하는 한편 잦은 병살(10회)과 실책(7회)으로 스스로를 묶어왔다. 이성열, 송광민 등의 베테랑이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해 유격수 하주석(허벅지 근육 손상), 간판타자 김태균(부진)의 1군 공백은 더욱 도드라졌다. 이들의 자리를 대체할 새 얼굴이 없다는 것도 한화의 암담한 현실이다.

숨 돌릴 틈이 없다. 한화 한용덕 감독은 5월을 떠나보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6월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살벌한 일정이 한화를 기다리고 있다. 2~4일 키움, 5~7일 NC와 차례로 3연전을 치른다. 올 시즌 키움에는 3연패, NC에는 1승2패로 상대전적에선 모두 한화가 열세다. 그나마 6경기를 모두 안방에서 치른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최근 선발진의 힘이 떨어진 한화로선 걱정이 앞선다. 득점생산에 애를 먹는 터라 마운드에서 최소실점으로 버텨줘야 연패 탈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키움, NC의 강타선은 투수진에 큰 부담이다. 더욱이 장시환은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18볼넷을 허용하며 기록을 보이고 있

KBO리그 2일 선발투수 ※ 이하 18시30분 개시

원정팀	장소	홈팀
원태인 ◀ 삼성	잠실	LG ▶ 이민호
유희관 ◀ 두산	수원	KT ▶ 메스피에
한현희 ◀ 키움	대전	한화 ▶ 김이환
박세웅 ◀ 롯데	광주	KIA ▶ 임기영
문승현 ◀ SK	창원	NC ▶ 이재학

고, 시즌 평균자책점이 7.58까지 치솟은 장민재는 28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토종 선발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고졸 2년차 김이환이 6월의 문을 연다. 스윙맨 자원인 그는 장민재의 이탈로 선발로테이션에 다시 합류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2일 키움 한현희와 맞대결하는 김이환의 어깨가 무겁다.

서대원 기자 seody3062@donga.com

‘이흥련 효과’에 구단들 트레이드 카드 만지작

A급 불펜카드 시장에 나와 단장들, 물밑 작업에 분주

SK 와이번스처럼 트레이드 효과를 보려는 팀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10연패의 암흑 속에 빠져있던 SK는 최근 절묘한 시즌 중 트레이드를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5월 29일 투수 이승진(25)과 포수 권기영(21)을 내주는 대신 두산 베어스로부터 외야수 김경호(25)와



SK 이흥련

포수 이흥련(31)을 받아왔다.

안방 불안에 시달리던 SK는 이흥련의 합류로 단숨에 꼴찌를 벗어났다. 이흥련은 5월 30일과 31일 인천 한화 이글스전에서 2연속경기 홈런을 때리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SK도 이를 발판 삼아 4연승을 신고하며 승패의 마진을 ‘-9’(7승

16패)까지 줄였다.

단 한 명의 주전급 합류만으로도 팀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시즌 중 트레이드가 높은 효율을 보이는 이유는 시즌을 치르며 여실히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도 SK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자 각 팀간 물밑 협상은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대다수 팀들은 불펜 싸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보다 장타가 많아지고 있어 극소수 팀을 제외하고는 불펜투수들의 평균자책점이 대부분 높다. 1이닝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불펜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진

상태. 이 때문에 각 구단은 수준급 불펜 투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기만을 기다려왔다.

때마침 시장에는 A급 불펜투수가 2명이나 나왔다. 해당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구단들은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과물을 만들진 못하고 있다.

트레이드를 주도하고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는 단장들은 스토브리그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밑 협상은 비단 드라마 속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